



남원소방서, 시뮬레이션 전술훈련 베스트팀 선발

남원소방서가 지난 8월 13일, 전북소방교육훈련센터에서 열린 ‘2026년 도 시뮬레이션 전술훈련 베스트팀 선발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 전북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는 도내 5개 소방서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각 팀은 지휘팀 4명과 안전센터 팀원 5명 등 총 9명으로 출전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영상과 시나리오에 따라 현장 지휘 및 전술 대응 능력을 겨뤘다.

남원소방서 출전팀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은 물론, 팀원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 체계적인 지휘 및 입무 수행 등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남원소방서는 오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전북 대표팀 자격으로 출전해 전국의 우수 팀들과 다시 한번 기량을 겨루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본부, 이불 기부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13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본부장 김용우)가 도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여름이불 84세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여름이불은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우 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채무조정·복합지원을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나눔 행사 지원 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덕과면,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지원 나서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현욱)는 관내 어르신들의 폭염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에 나섰다.

특히 김현욱 면장은 관내 마을 경로당 16개소를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폭염 예방 교육으로, 어르신들에게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냉방시설 운영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며 안전한 여름나기를 당부했다.

또한 덕과면 맞춤형복지팀은 관내 93세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주거환경을 살피고,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이 전기매트 위에 담요를 덮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연구협력체계 구축

국책과제 공동 추진·연구자원 교류로 융복합 연구 활성화… 지역 바이오헬스 혁신 기대

전북대학교병원이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융복합 연구협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3일 병원 본관 3층 가운데에서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종철 전북대병원장과 오선영 의생명연구원장을 비롯해 허정두 국가독성과학연구소장, 김성환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융복합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및 바이오기술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병원은 임상·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독성과학연구소는 독성 및 안전성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바이오헬스 분야 국책과제 공동 발굴 및 우수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연구자원 공동 활용 △연구인력 및 학술정보 교류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협력한다.

특히 단순한 연구 교류를 넘어 양 기관의 연구성과를 연계하고 우수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등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구중심 의료기관



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바이오헬스 연구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국가 보건의료 및 바이오산업 발전으로 확산시키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허정두 국가독성과학연구소장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성과가 실제 의료 현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상과 비임상 연구 간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대병원과 연구소가 연구 현장의 수요와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대학4-H연합회·정읍 청년농업인, 농사 현장 체험

전북 대학4-H연합회가 정읍 청년농업인들과 2박3일 동안 농촌 일손을 돕고 실제 농사 현장을 경험했다.

봉사활동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정읍지역 농가에서 진행됐다. 대학4-H회원 23명과 지역 청년농업인 5명 등 모두 28명이 참여해 농가별로 나뉘어 작업을 도왔다.

이번 활동은 대학생들이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선배 농업인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과 농사 기술을 배우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함께 작업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농촌의 현실과 청년농업인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토마토 생육 관리와 비닐온실 정비, 멜론 모종 심기 준비, 논에 심은 콩밭의 감매기와 잡초 제거 등을 진행했다. 농장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환경정비에도 힘을



려지면 휴식시간을 늘려 온열질환을 예방했다.

이번 활동은 참가자들이 지역 농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앞으로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현장 감각과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보됐다.

작업에 앞서 농장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처치 용품과 얼음물,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작업 중에는 충분히 쉬도록 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휴식시간을 늘려 온열질환을 예방했다.

이번 활동은 참가자들이 지역 농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앞으로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현장 감각과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 성수면자율방범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임실군 성수면자율방범대(대장 정성모) 대원 10여 명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대상 가구는 남성 중장년 1인가구로, 북부비만과 당뇨, 고혈압 등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폐지와 재활용품을 모아 생활비에 보태어 사용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번 대상 가구는 남성 중장년 1인가구로, 북부비만과 당뇨, 고혈압 등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폐지와 재활용품을 모아 생활비에 보태어 사용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성모 대장을 비롯한 자율방범대원 10여 명은 혹서기에도 흔쾌히 시간을 내 현장을 찾아 재활용품과 일발쓰레기 정리작업에 힘을 보탰다. /임실=이만호 기자

정읍내장상동 솔가이용훈대표,어르신께 냉면 나눔

정읍시 내장상동에 있는 솔가 숯불갈비 정읍점(대표 이용훈)이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 70여 명에게 시원한 냉면을 대접했다.

이용훈 대표는 18일 어르신들을 식당으로 초청해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마련했다.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다.

올해 초에는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이 이용하는 공유냉장고에 전해달라며 65만원 상당의 갈비탕 50인분을 기탁했다.

이용훈 대표는 “날씨가 무척 더운데 어르신들이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정을 나누는 일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 팔봉동 ‘공단철물안전건재’, 이웃돕기 성금

익산시 팔봉동에서 꾸준한 나눔을 이어온 착한가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냈다.

팔봉동은 18일 ‘공단철물안전건재(대표 김현식)’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공단철물안전건재는 매월 3만 원을 정기 기부하는 ‘착한가게’로, 평소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탁은 정기 후원과 별도로 성금 200만 원을 마련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현식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